

완주지역^{完州地域} 불교조각^{佛敎彫刻}의 특징

진정환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관

목차

- I. 머리말
- II. 후백제와 봉림사
- III. 국가비보와 수만리 마애불
- IV. 조선 불교 중흥과 송광사
- V. 맺음말

I. 머리말

삼국시대 불상은 주로 왕도나 지방의 거점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는데, 완주일대에서는 아직까지 삼국시대 백제의 불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설치한 전주의 주치가 완주일대에 조성되었음에도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은 없는 형편이다.

지금까지의 조사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완주지역의 가장 이른 시기 불적은 고산면 봉림사지로, 후백제 시기의 것임이 확인되었다(陳政煥 2010. 6; 2015. 10). 고려시대 조성된 불상으로는 동상면 수만리 마애불과 같은 괴체적인 마애불을 손꼽을 수 있다(陳政煥 2003, 42-43). 조선시대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뒤 완주지역에는 송광사, 위봉사, 정수사 등 사찰이 중수되면서 다양한 불교조각품이 조성되었다(송은석 2012).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조사 및 연구된 완주지역 불교조각품 가운데 각 시기별 대표적인 것을 살펴봄으로써 각 시기별 불상의 특징, 성격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¹⁾ 이를 위해 첫 번째로, 후백제의 대표적인 불교미술품인 봉림사지 석조삼존불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 완주지역의 고려시대 불상 가운데 비교적 형태가 잘 남아 있는 동상면 수만리 마애불좌상을 통해, 고려시대 불교미술품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어떻게 활용되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에 중창된 완주지역의 여러 사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소양면 송광사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조각승들의 활약상과 더불어 조선불교사에서 송광사가 갖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 밝혀보도록 하겠다.

II. 후백제와 봉림사

완주 봉림사지는 전주의 북동쪽인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에서 대둔산 쪽으로 2.4km 정도에 떨어진 구 삼기초등학교(현재 완주 지역경제순환센터) 뒤편 인봉산 남쪽 줄기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절터에 있던 삼존석불·석탑·석등은 일제강점기 또는 1960년대 외부로 반출되었으며(全北大學校 博物館 1979, 127-128; 국립문화재연구소 1994: 63), 최근에야 절터가 발굴되어 나말여초기 문화상이 확인되었다(全北大學校博物

1)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후백제와 고려시대 불교미술품에 대한 서술은 필자가 발표한 논문(陳政煥 2003; 2010. 6; 2015. 10)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館·완주군 2015; 전북대학교박물관 2016. 7; 전북대학교박물관 2017. 12).

봉림사지 삼존불(陳政煥 2010. 6: 174-180; 2015. 10: 37-40)은 대좌와 광배를 갖춘 본존불을 중심으로 좌·우협시보살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머리가 결실되었다.

본존불은 9세기 후반 석불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듯, 오른팔과 가슴 사이를 깊게 조각하여 입체감을 살리고 있으며 어깨를 좁게 무릎은 낮고 둥글게 모델링 하여 아담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세부표현에서는 9세기 후반의 불상과 차이를 보이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옷깃춤과 왼손의 표현이다.

편단우견식偏袒右肩式으로 착용한 대의 가슴부분에는 통상의 편단우견식 불상에서는 볼 수 없는 승각기 띠 매듭이 표현되어 있다. 통일신라 불상 가운데 이처럼 승각기와 대의를 겹쳐서 착용한 소위 이중착의법二重着衣法을 보이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주진령 2002. 6: 16-28), 가슴 아래를 가로지르는 띠와 매듭은 봉림사 본존불 외에 **완주 대아리 석불좌상**과 안동 옥산사지玉山寺址 마애약사불좌상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극소수의 불상에서만 볼 수 있는 띠매듭은 특정 조각가 또는 유파의 독특한 형식적 특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안동 옥산사 마애약사불좌상은 봉림사지 본존불과 양식적 특징, 즉 아담하면서도 균형 잡힌 비례와 모델링 방식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각가 또는 유파가 조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단, 옥산사 마애불보다 다양한 형식이 결합된 봉림사지 본존불이나 대아리 석불보다는 좀 더 이른 시기의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안동지역 조각유파가 후백제 불사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927년 견훤이 경주에서 뛰어난 장인을 포로로 잡은 사례를 비롯하여 후백제가 전투지역의 민민을 포로로 삼은 사례가 많고, 후백제의 주요 전장이 안동지역을 포함한 경북 북부지역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광배와 대좌에서는 그 연원을 달리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혼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광배는 9세기 불상 광배에서 팔공산八公山 마애약사불좌상과 유사한 **녕쿨무니唐草文**, 화염무니火焰文, 연꽃잎무니蓮瓣文가 새겨져 있지만, 화불化佛만은 인근의 백제 불상인 익산 연동리 석불좌상 광배의 화불형태와 유사하다. 대좌는 앞 시기 불상에서는 볼 수 없는 방형과 팔각형 평면을 조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합 방식은 봉림사지 석등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어 봉림사 석조미술을 담당할 유파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좌에서 주목할 점은 중대석에 가릉빈가迦陵頻迦와 주악천인상奏樂天人像이 새겨진 점인데, 이 두 가지 도상圖像이 같이 등장하는 불교석조미술품은 이것과 문경 봉암사鳳巖寺 지증대사적조탑智證大師寂照塔 두 예밖에 없다. 이것에서 봉암사 지증대사적조탑을 조성한 집단 혹은 그 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은 세력이 이 불상 조성에 참여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봉암사가 견훤의 출생지인 가은현加恩縣(문경)에 있는 선종사원이라는 것이다.

보살상은 9세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인 단구형短軀形의 평면적이면서 부드러운 모델링을 보인다. 그런데, 광배와 마찬가지로 세부형식, 예컨대 부여 군수리軍守里 출토 금동보살입상에서 볼 수 있는 X자로 겹치는 천의, 국보 78호 금동반가사유상의 리본모양 띠 매듭과 팔찌와 완전腕釧 등 백제적 요소도 함께 보인다. 이렇게 광배와 보살상에서 공통적으로 백제를 연상시키는 요소가 보이는 것은 단순 모방이 아니라 의도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봉림사지 삼존불은 안동 옥산사 마애불을 조성한 조각유파를 중심으로 팔공산, 문경 등지의 여러 조각유파 혹은 세력들이 참여하여 조성한 불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의도적으로 백제 불상이나 보살상을 연상시킬 수 있는 삼국시대 불·보살상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삼존불이 백제의 계승을 내세웠던 견훤 또는 후백제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삼존불과 동시에 조성된 오층석탑과 석등은 10세기 초 석탑과 석등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인다(陳政煥 2015. 10: 40-41). 특히, **봉림사지 오층석탑**은 삼존불과 마찬가지로 신라 일반형 석탑의 전형적인 특징인 중층기단을 보이면서도, 얇은 옥개석, 3단의 옥개받침, 넓은 처마 하단 등 백제 석탑의 요소가 결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후백제 석탑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이나 구례 화엄사 동오층석탑에서 볼 수 있다(陳政煥 2010. 6: 167-168). 그리고 **봉림사지 석등**은 다른 석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운룡문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로써 후백제 왕실과 봉림사지 석조미술품이 관계가 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봉림사지 석조미술품을 일관一貫하는 공통의 특징도 보이는데, 그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방형과 팔각형이 조합된 점이다. 이는 석불 대좌와 석등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불·보살상의 대좌 뒷면 연판문을 조각하지 않은 것이나 대좌 중대석 뒷면은 부조상을 새기지 않은 것 등 보이지 않는 면은 조각하지 않았다. 이는 석탑과 석등의 세부표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석조미술품 모두 지대석 윗면 안쪽과 모서리에 두툼한 돌대를 두르고 있다.

요컨대, 후백제 건국 이후 유입된 조각유파가 참여하고 백제를 연상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투영된 봉림사지 석조미술품은 후백제 왕실의 후원 아래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봉림사지는 어떤 성격의 사찰이었을까? 아쉽게도 후백제 사원에 대한 기록이 전무한 형편이다. 다만, 고려의 왕도 개경의 불사 사례에 빗대어 볼 때, 후백제 역시 왕경 내 불교 또는 국가의 의식을 실행하기 위해, 방어 혹은 교통로의 거점에, 그리고 왕궁리 오층석탑과 같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기념비적 성격을 지닌 불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봉림사가 후백제 왕도 전주에서 주요 전장인 경북 북부지역으로 가는 교통로 상의 중요 거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봉림사는 왕도 및 교통로의 비보와 함께 후백제의 원정군을 위한 원찰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陳政煥 2010. 6: 162-163).

Ⅲ. 국가비보와 수만리 마애불

완주지역 고려시대 불상은 동상면 수만리 마애불과 구이면 향가리 마애불이 있다. 이 가운데, 수만리 마애불은 비록 하반신이 마멸磨滅되었으나 비교적 그 형태가 잘 남아있는 반면, 향가리 마애불은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다만, 두 마애불 모두 산 중턱에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조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수만리 마애불좌상(陳政煥 2003: 42-43)의 얼굴은 살진 네모난 형태인데 다소 침울한 표정을 보인다. 신체 역시 얼굴과 마찬가지로 방형方形의 형태로 비만하다할 정도로 장대하다. 옷은 양 어깨를 덮은 통견으로 승각기와 대의 두벌을 겹쳐 있고 있다. 목깃에서 가슴을 가로질러 승각기僧却崎가 비스듬히 새겨져 있으며, 대의는 평행한 옷주름이 밀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승각기 띠매듭이 없고 대의의 평행밀집형 옷주름은 9세기 중엽 이후 불상에서 본격적으로 보이는 것이다(주진령 2002. 6). 수인手印은 향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맺고 있다. 하반신은 비례 상 상반신이나 손에 비해 매우 작게 표현되어 있다. 대좌는 유례가 많지 않은 상현좌이다.

이 마애불은 착의법이나 수인 등은 9세기 중엽 이후 통일신라 불상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러나 얼굴이 작고 단아하면서 섬약한 9세기 중엽 이후 불상(진정환 2013: 24-36)과 달라, 통일신라 불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말 불상 양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후백제 불상 역시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수만리 마애불에서 볼 수 있는 방형의 형태미와 장대한 조형성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신앙식이라 일컬을 수 있는 일군一群의 고려시대 불상이다. 즉 통일신라 불상 형식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고려 초 신앙식 석불의 조형미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하남 하사창동 철불좌상처럼 수만리 마애불 역시 고려 신앙식 불상의 영향을 받아 조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그 조성시기는 신앙식 불상양식이 석주형으로 완전히 변화하는 11세기 중엽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10세기 중엽부터 11세기 중엽 사이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려 초에 이처럼 장대한 마애불을 어찌하여 이 깊은 산속에 조성하였을까? 고려 태조는 훈요십조에서 ‘우리나라의 대업(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반드시 모든 부처의 호의에 힘입은 것이다.’라고 하면

서, ‘도선이 지정한 산수의 순역에 따라 개창된 것이니, 신라 말 경쟁하듯 사찰을 창건하여 지덕을 쇠약하게 말라.’고 하였다. 왕건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미 사찰이나 불교미술품이 지덕의 쇠처衰處나 역처逆處를 보완할 수 있다는 “비보사탑설裨補寺塔說”이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백운사 내원사 사적기에 ‘결함이 있는 땅은 사찰을 창건해 보완하고, 지세가 과도한 곳은 불상으로 누르며, 달아나는 곳은 탑을 세워 머무르게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朝鮮總督府 1968: 18-19)으로 보아, 과도한 지세를 억누르기 위해 불상을 조성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왕도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완주일대는 후백제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후백제 사찰인 봉림사와 대아리 석불좌상, 또 다른 후백제 불상인 음수동 석조약사불좌상이 집중적으로 분포할 정도로 후백제 불교의 산실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런데 고려가 후백제를 멸망시킨 직후, 그러한 곳에 수만리 마애불을 조성한 것이다. 이제 막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입장에서는 후백제 지역의 동요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비보사탑설 또는 국가비보사상과 후백제의 부흥을 막고자 했던 고려 왕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후백제 불교의 중심지였던 완주지역을 억누르기 위해 바로 수만리 마애불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조선 불교 중흥과 송광사

조선은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불교 자체가 쇠퇴 일로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불상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쇠퇴일로에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서 보여준 승병들의 활약에 의해 17세기 중엽 이후 수많은 사찰이 중건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뛰어난 조각승彫刻僧과 화승畫僧에 의해 수많은 불상과 불화들이 조성되었다. 완주지역의 송광사松廣寺, 위봉사威鳳寺, 정수사淨水寺, 안심사安心寺, 화암사花巖寺 등 이름 높은 사찰도 이때 대부분 중건되었다.

이 가운데에서도 송광사는 승군에 참여했던 승려와 종친이 함께 참여할 정도로 그 위상이 다른 사찰과는 달랐다. 이 논문에서는 이 송광사의 불적佛蹟을 중심으로 완주지역 불상 조영 양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찰에서 전하는 바에 따르면, 완주 송광사는 신라 진평왕 5년(583년) 터를 잡고, 경문왕 7년(867년) 가지산문迦智山門의 3대 조사인 체징體澄이 창건하였다고 한다(松廣寺 1997: 15). 그러나 1636년 쓰여진 송광사 개창비문에는 그 내용은 보이지 않고,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이 폐허가 된 이 송광사 터를 지나다가 대성지임을 알고 표시해두었다가, 순천 송광사 개창 후 제자들에게 중창을 부탁하였다고 전한다. 또 개창비문에는 임진왜란 때 화마를 입은 후 1622년에는 덕림德林, 응호應浩, 승명勝明, 운정雲淨, 득순得淳, 홍신弘信 등이 이극룡李克龍의 시주로 중창을 시작하였다는 것과 벽암碧巖 각성覺性이 50일 간 화엄법회를 열고 대화주가 되어 본격적인 불사가 이어졌다는 기록이 있다(李康根 1999: 104-105). 이를 이어서 대웅전 후불화(1638년)나 대웅전 삼세불(1641년), 명부전·나한전·천왕문 안에 봉안할 불상의 조성이 이루어졌다.

대웅전에는 높이 540cm에 달하는 **소조삼세불**(文明大 1999: 7-26)이 봉안되어 있는데, 이 삼세불의 복장에서 조성기가 발견됨에 따라 1641년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세불은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그 왼쪽에 약사여래를, 오른쪽에 아미타여래를 배치하였다. 조성기는 조성시기뿐만 아니라 이 삼세불이 당시의 주상과 왕비는 물론 청에 볼모로 잡혀갔던 세자와 봉림대군의 환국을 기원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시주자로 벽암대사 각성을 비롯하여 신자 19명, 승려 160명이 등장하며, 화원畫員 즉 조각승으로 청헌淸憲을 비롯한 16명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이 불상은 엄숙한 표정의 얼굴, 건장한 신체, 손을 발 위에 닿을 정도로 낮게 두는 기법 등 청헌 또는 그의 일파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송은석 2012: 138-152). 한편, 불상 곁에 있는 「주상전하수만세主上殿下壽萬歲」, 「왕비전하수제년王妃殿下壽齊年」, 「세

자저하수천추世子邸下壽千秋」가 쓰인 3기의 전패가 있다. 주상전하 전패 뒷면에 「순치세유청조월재順治歲有青鳥月在 삼월낙성三月落成 시주지홍신時主持弘信」의 목서가 있어, 인조연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다른 2위의 전패 뒷면에는 「건륭오십칠년乾隆五十七年 임지오월壬子五月 일일 중수삼전패야重修三殿牌也」라는 목서가 있어 정조 16년(1792년) 수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한전 내부에는 **석가삼존상**과 16나한상(박도화 1999: 27-56) 등이 봉안되어 있는데, 석가여래좌상 복장에서 「조성회원문造成回願文」이 발견되어 순치 13년 즉 1656년에 봉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불상 역시 벽암 각성이 주도하였고, 청헌이 주도한 대웅전 소조삼세불과 달리 수열守悅과 무염無染 등이 참여하였다. 이 불상은 턱과 뺨의 얼굴 근육과 양감이 굴곡 있게 묘사된 것이 특징이며, 왼쪽 팔의 요형 옷주름, 자연스러우면서도 입체적인 두 다리의 옷주름이 특징인데, 이는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불좌상(1633년),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1652년) 등 무염이 제작에 참여한 불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송은석 2012: 324-338). 석가모니의 좌우에는 연꽃가지를 들고 있는 협시보살상이 있는데, 발원문에 나와 있듯이 좌협시는 석가모니의 전생이었던 제화갈라보살, 우협시는 미래에 올 미륵보살이다. 16나한상과 함께 제석천, 동녀, 사자, 금강역사 등은 석가여래좌상과 같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석고제 500나한상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명부전에는 **지장보살삼존상**(김정희 1999: 57-89)과 함께 시왕상 및 그 권속들이 봉안되어 있다. 「시왕 조성흥공기」에 따르면, 승명勝明이 경진년(1640년) 시왕상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지장보살의 좌협시는 합장한 도명존자이고, 우협시인 무독귀왕은 시왕과 같은 형태의 관을 쓰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개를 숙인 방형의 지장보살상 얼굴, 가슴 앞 수평의 내의, 사각형의 시왕 얼굴, 오뚝한 코, 신체에 비해 작은 손 등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등 17세기 중엽 불상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천왕문 안에는 **사천왕상**(魯明信, 1999: 91-102)이 봉안되어 있는데, 그 조성시기는 보탑을 든 사천왕상 왼쪽(보기에는 오른쪽) 보관 끈 뒷면을 떼어냈을 때, 「순치을축년順治乙丑年 시월일필十月日畢 금산화면주조□위□金山畫面主造□爲□」라는 목서가 있어, 1649년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보탑 밑바닥에서는 「건륭오십일년병오오월일성유천왕중수시별회신조성야병술생乾隆五十一年丙午五月日性有天王重修時別會新造成也丙戌生」이라는 목서가 있어 1786년 성유性有라는 인물이 이 보탑을 새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완주 송광사에 이렇게 많은 불상을 비롯하여 전각이 세워질 수 있었던 배경에 벽암 각성이 있었다. 벽암대사는 임진왜란 때 의승군으로 해전에 참여한 전격이 있으며, 전란 후에는 1622년 해인사 대장경판고 중영, 1622년 완주 송광사 개창, 1624년 남한산성을 축조, 1632년 화엄사 중수 등 수많은 불사와 역사를 주도하였던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1636년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3천명의 승군을 모아 '항마군'이라 명명하고 승병장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호국의 화신이라 불려도 손색없을 정도인 벽암대사가 중창한 사찰의 경우, 완주 송광사에서 볼 수 있는 사천왕상이 어김없이 조성되어 있다. 이는 송광사가 양란 이후 호국의 염원을 담아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왕, 왕비, 세자의 안녕과 장수를 비는 목패를 봉안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단편적으로나마 후백제·고려·조선시대 완주지역에 조성된 불상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후백제시기 이 지역에는 후백제에게 있어 중요한 교통로 상에 왕실사찰인 봉림사를 조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조각유파가 형성되고 활동할 정도로 후백제 불교미술의 거점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후백제가 고려에 패망한 이후에는 지역의 비보를 뛰어넘어 국가비보를 위한 불상이 조성되기도 한다. 유교국가 조선에서 쇠퇴하던 불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승병들의 활약에 힘입어 완주지역에도 많은 사찰들이 중

창되는데, 그 명분은 호국과 왕실의 안녕이었다. 이처럼 완주지역의 불교조각의 조성배경에 일관되게 국가 비보 또는 호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완주지역에 있는 불교사원이나 불상들이 모두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그렇다고 왕실과 국가의 비보를 내세우면 사원과 불상을 조성한 사례가 시대를 달리하여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것을 완주지역의 불교조각의 특징으로 꼽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특징이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막연하게나마 후백제 왕도이자 전라도에서 가장 큰 고을이며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지리적 여건과 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즉 완주의 문화상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전주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그 성격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리라 보인다.

참고문헌

- 단행본·보고서·학위논문 -

국립문화재연구소, 1994, 『小川敬吉調査文化財資料』, 국립문화재연구소.

松廣寺, 1997, 『禪宗大伽藍 松廣寺』, 松廣寺.

송은석, 2012,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서울: 사회평론.

全北大學校 博物館, 1979, 『全州·完州지역 문화재 조사보고서』, 全北大學校 博物館.

全北大學校博物館, 2015, 『完州鳳林寺址』, 全北大學校博物館·완주군.

전북대학교박물관, 2016. 7, 『완주 봉림사지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박물관, 2017. 12, 『완주 봉림사지 발굴조사(3차) 약식보고서』, 전북대학교박물관.

朝鮮總督府, 1968, 『白雲山內院寺事蹟』上, 서울: 中央日報社.

鄭明鎬, 1994, 『韓國石燈樣式』, 서울: 民族文化社.

陳政煥, 2013, 『高麗前期 佛教石造美術 研究』,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논문 -

김정희, 1999, 「松廣寺 冥府殿의 圖像研究」, 『講座 美術史』13, 韓國佛教美術史學會.

魯明信, 1999, 「松廣寺 四天王像에 대한 고찰」, 『講座 美術史』13, 韓國佛教美術史學會.

文明大, 1999, 「松廣寺 大雄殿 塑造釋迦三世佛像」, 『講座 美術史』13, 韓國佛教美術史學會.

박도화, 1999, 「松廣寺 五百羅漢殿 羅漢像」, 『講座 美術史』13, 韓國佛教美術史學會.

李康根, 1999, 「完州 松廣寺의 建築과 17세기의 開創役」, 『講座 美術史』13, 韓國佛教美術史學會.

주진령, 2002. 6, 「統一新羅 下代 佛像의 二重着衣法 研究」, 『美術史學研究』223.224, 韓國美術史學會.

陳政煥, 2003, 「高麗時代 全北地域 石佛에 대한 考察」, 『東岳美術史學』4, 東岳美術史學會.

陳政煥, 2010. 6, 「後百濟 佛教美術의 特徵과 性格」, 『東岳美術史學』11, 東岳美術史學會.

陳政煥, 2015. 10, 「後百濟 佛教美術과 그 影響」, 『전북사학』47, 전북사학회.

진정환, 2019. 2, 「후백제 불교미술품과 고고자료의 검토」, 『湖南考古學報』61, 湖南考古學會.